

## 아내폭력의 실태와 관련변인들

-충남 서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중 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옥 선 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남 영 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

아내 폭력은 다른 범죄에 비해 은밀하여 가정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가정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모방과 학습을 통하여 세대간에 걸쳐 악순환 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의 미시체계인 가정에서부터 발생한 폭력관련 문제들이 가정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내 폭력 방지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 작업은 먼저 각 지역의 아내 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그 지역의 실태에 가장 적합한 지원체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내 폭력방지와 관련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정책적인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는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필요하며, 아내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러 선행 연구에서 그 관련성이 논의되어 왔던 관련 변인들과 아내 폭력과의 관계를 조망함으로써 아내 폭력 관련 상담이나 폭력 예방교육,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의 참조 자료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서산 시내 거주하는 132쌍의 일반 부부들로서 이들은 20대에서 50대의 연령대에 속하며 1자녀 이상을 둔 부부들로 층화표집에 의하여 선발되었다.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한국판 자아존중감 척도, 부부 갈등 척도, 의사소통 척도,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척도, 알코올 지수, 그리고 아내폭력 척도를 사용하였고, SPSS WIN 통계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상관분석, t-test,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신체폭력의 빈도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폭력 보다 덜하였으며, 부부들의 폭력 후 대처 방식은 대체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내들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들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빈번할수록, 부부들의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남편의 알코올 섭취량과 빈도가 많을수록, 부부가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아내폭력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편들일수록, 비난형을 제외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부부들일수록, 부부갈등의 점수가 높은 부부들 일수록,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을 많이 경험한 부부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들보다 아내폭력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 독립변인들 중 부부갈등과 원가족으로부터의 폭력경험, 의사소통이 아내폭력에 대해 60%를 설명하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